

【논 문】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과 욕망의 정치학*

곽 은 희**

┃ 차 례 ┃

1. 들어가며
2. 리얼리티(reality)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3. ‘동원’에서 ‘열정’으로 : 열정의 신화, 깡생의 윤리
4. 유토피아 표상의 간극과 균열
5. 나가며 : 긍정의 폭력, ‘자발적 동의’에 대한 사유

국문초록

이 글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유토피아적 욕망’이 근대의 실험장이자 식민지 조선 사회의 탈출구였던 ‘만주’를 통해 표상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행문·시찰기·좌담회를 분석하였다. 만주 기행문은 제국이 욕망하는 ‘만주’ 표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만주에 관한 대중들의 욕망을 추동하며 관리하는 ‘욕망의 장소지(topography)’이다.

한편, 유토피아 표상이 만들어내는 판타지가 과잉될수록 프로파간다 내부에는 미처 통합하지 못하는 잉여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 만주에 대한 유토피아적 욕망 역시 ‘이주 → 개척 → 정착’과 같은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노동을 통한 정착의 꿈’이 만주 유토피아를 구성하던 중요한 축이었다면, ‘놀이(채표)를 통한 귀향의 꿈’은 만주 유토피아에 균열을 가하는 또 다른 축이다.

자발적 동의에 이르도록 하는 긍정의 메커니즘은 대중들의 욕망에 호소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27-A00428).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욕망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되지만, 동시에 ‘긍정성의 폭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낳는다. 긍정성의 폭력은 동원을 열정의 이름으로, 강제를 자유 의지의 발현으로 봉합하는 프로파간다의 본질이다.

주제어 : 전시체제기, 프로파간다, 만주, 만주국, 기행문, 유토피아, 욕망, 열정, 동원, 자기 착취, 균열, 간극, 이주, 귀환, 소진, 고갈, 자유, 긍정성의 폭력

1. 들어가며

이 글은 막대한 인원을 동원하는 총력전의 성격을 띠는 근대전(近代戰)의 경우, 프로파간다와 떼려야 뗄 수 없다¹⁾는 데 주목하여, 파시즘이 어떻게 대중들의 집단 정서를 만들어 내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구명하고자 한다. 대중 동원에서 핵심적인 것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시기의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은 대중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마음을 사로잡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욕망’이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일상의 영역에서 유행처럼 배회하면서 당대 주체들과 결합되어 사회적 실천으로 실천되는 것은 바로 ‘욕망’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욕망은 개인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순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실천 영역에 놓여 있다. 헤게모니가 다수의 동의에 의해 지지되며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할 때, ‘욕망’은 다수의 동의를 보다 즉각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해 주는 프로파간다의 마중물이다. 프로파간다 전략이 주로 이 상항에 대한 대중들의 욕망, 즉 유토피아적인 비전이 지닌 설득력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프로파간다가 작동되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욕망’

1)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2009, 『대중을 유혹하는 무기-정치와 프로파간다』, 한울 아카데미, 63쪽.

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유토피아적 욕망’이 근대의 실험장²⁾이자 식민지 조선 사회의 탈출구였던 ‘만주’를 통해 표상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주광(滿洲狂)이 조선의 4대광(四代狂) 중의 하나³⁾로 떠오른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전시체제기의 미디어에서 만주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유포했던 기행문, 시찰기, 좌담회를 대상으로 만주가 동양의 ‘엘도라도(eldorado)’로 표상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장소를 새로운 개척지이자 이상향으로 표상하는 것⁴⁾은 근대성의 작동 메커니즘 중 하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근대성의 구조가, 대중들의 욕망을 주조하고 창안하는 욕망의 정치학과 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명할 것이다.

일정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만주 표상이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현 텍스트와 대중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량 유포되는 근대적 미디어는 프로파간다를 대중적으로 유포하는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다. 프로파간다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주는 테크놀로지가 없다면, 프로파간다 전략은 일정 지역 바깥에서 다수를 향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만주에 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근대적 미디어는 프로파간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본질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독자 대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2) 만주국은 일본의 군대와 관료들을 위한 훈련장일 뿐 아니라, 총력전 체제·통제 경제·건축·도시계획·박물관 경영 등에서 일본 근대의 실험장이었다(임성모, 『만주국과 오키나와의 비교사적 고찰』, 한기정·노기식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336~355쪽).

3) 우석(愚石), 『현대조선(現代朝鮮)의 사대광(四代狂)-만주광(滿洲狂), 금광광(金鑛狂), 미두광(米豆狂), 잡지광(雜誌狂)』, 『第一線』, 1932년 9월호, 82~86쪽.

4) 물론 만주가 이상향으로 창안되고 표상되는 것은 전시체제기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조선에서 만주는 1세기 이전부터 기아를 피해 필사적으로 이주를 감행했던 이상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필사적인 탈출과 잠입의 형태로 시작된 조선인의 만주 이민은 이후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되었지만, 만주를 향한 이민의 역사는 해방 이전까지 지속되었다(김기훈,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 제국내 이민 정책의 유산』, 한기정·노기식 편, 2008, 앞의 책, 197~214쪽).

나오는 ‘잡지’는 대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한 자극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행동주의 심리학의 가설을 보면, 일정한 자극을 반복해서 가하면 습관으로 굳어지며, 어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⁵⁾고 한다.

1938년 대륙개척이민정책이 국책으로 정해진 후, 1939년 2월 동경에서 대륙개척문예간화회(大陸開拓文藝懇話)가 결성되어 만주 개척 이민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발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39년 대륙개척문예간화회 회원들은 만주국의 이민사업과 청소년의용군 훈련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가⁶⁾ 서울에 들려 조선인 문인들과 좌담회⁷⁾를 가지기도 하였다. 대륙개척문예간화회를 통한 일본 문단과의 연계 속에서 조선 문단 역시 만주 개척을 소재로 한 소설과 기행문, 시찰기를 대거 창작하였으며, 신문⁸⁾ 역시 조선 농민들의 만주 이주를 다루는 기사들을 전면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프로파간다는 본질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미리 제조된 상징 조작을 세심히 정해놓은 것”⁹⁾이므로,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는 기만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만주 사변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만주붐’은 사실, 조선 반도 내의 모순을 밖으로 향하게 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농민의 만주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세계 공황 이후 조선 반도 내의 경제 불황과 농촌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간다의 표면에서 ‘만주붐’의 역사적 기원은 소거된

5)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2009, 앞의 책, 123쪽.

6) 『우리사회의 제내막(諸内幕)』, 『삼천리』, 1939년 7월호, 7쪽.

7) 조선문단에서는 백철·이원구·유진오·박영희·김용제 등이 이 좌담회에 참석했다(『대륙개척문예간화회환송회』, 『동양지평』, 1939년 6월호, 42~48쪽).

8) 『동아일보』 1939년 1월자 2면은 “조선의 농민노동자는 대륙개척의 선발대!”라는 제목으로 「수전개척의 선구자 만주엔 백만이 산재」, 「이민은 국책 씩씩하게 살아가자」,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원인으로」 등의 기사를 실고 있으며, 같은 면에 「만주 이민의 출발광경」과 「넓은 풀밭에 김매는 조선 부인들」을 사진으로 실고 있다.

9)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2009, 앞의 책, 38쪽.

10) 田中隆一, 『滿州國と日本の帝國支配』, 2007, 東京:有志舎, 180~181쪽.

다.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한 대상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최대한 소거하고, 원래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화시키는 것이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러므로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에는 자연화의 과정을 역행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프로파간다가 형성된 결을 그대로 따라 읽어가는 방식(3장)과 그 결을 역행해 읽어가는 방식(4장)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프로파간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양 방향 읽기는 프로파간과의 표면에서 휘발된 지점을 불러오기도 하고, 프로파간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균열의 지점을 포착함으로써 프로파간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을 띌 수 있을 것이다.

2. 리얼리티(reality)와 프로파간다(propaganda)

대규모 디아스포라를 추동하고 생성하는 원동력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비전이다. 당시 만주는 정치유형을 조성하는 자치장소로서, 일본의 기성사회에서는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개척지로 표상되었으며, 일본인들이 낭만을 품은 유일한 장소¹¹⁾였다. 만주의 이상과 혁신에서 ‘민족협화(民族協和)’와 ‘왕도낙토(王道樂土)’ 이념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인류최고의이념, 즉 민족끼리 협화(協和)를 하고 왕도국가를 완성시키고 도의(道義)가 행하여지는 사회를 창설한다”¹²⁾는 선언에서 확

11) 프레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134~135쪽. : 만주국 건설이 일종의 유토피아 실현의 시도였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 : 만주국의 표상』, 소명출판, 34~37쪽을 참조할 것. 만주 유토피아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철, 2002. 8, 「몰락하는 신생(新生)-‘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誤讀)」, 『상허학보』 9집, 123~159쪽. : 이경훈, 2003. 4,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92~119쪽.

12) 서범석, 「협화운동과 우리의 각오」,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1942, 新京 : 滿鮮學海社, 45쪽.

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주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서구적 근대 문명과 변별되는 ‘아시아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만주의 정치적 혁신과 실험성은 “민족이 협화해야 진정한 민의(民意)를 반영할 관민일도(官民一途)의 독창적 왕도 정치를 실현”¹³⁾하는 것이었고, 관동군 사령관은 ‘협화회’를 일컬어 만주 제국 정부의 정신적 모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국가 영토 안에 거주하는 자(者)난 모다 친소존비(親疎尊卑)의 차별이 업고 고유의 한족(滿族), 만족(漢族), 몽고족(蒙古族)이나 일본 내지(內地), 조선의 각 민족은 물론이요 기타의 외국인이라도 장구히 거주를 원하는 자에게는 일률로 평등 대우를 바들 수”¹⁴⁾ 있다는 데 이르면, ‘협화회’의 이상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평등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만주 표상에 각인되어 있는 유토피아 지향성의 특징은, 그것이 관념적이고 몽상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물질적인 기반을 토대로 현실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만주국에 진행된 대규모 산업화와 도시화를 근간으로 한, 근대화의 가시적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¹⁵⁾ 만주의 유산은 동아시아의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이었던 만주가 전후 국민국가로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만주국의 근대적 유산은 전후 중국의 국민국가의 과정에, 그리고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¹⁶⁾ 또한 만주국의 전시통제 경제를 가리켜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 시스템의 기원이라는 주장¹⁷⁾이 제기되기도

13) 김경재, 「협화회와 조선민족의 무대」, 『삼천리』, 1938년 5월호, 104쪽.

14) 김경재, 같은 글, 102쪽(표기법은 원문 그대로 함).

15) 만주국의 최첨단 산업화를 바탕으로 제국 일본은 자급적 일본-만주 블록을 형성하였다. 만주는 일본 밖 아시아의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선진적인 산업토대를 구축하였으며, 1933년과 1942년 사이에는 산업생산이 3배로 늘었다. 1945년까지 만주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조선, 타이완, 기타 중국에서의 투자 합계를 넘었다. 이에 대해서는 Louise Young, *Japan's Total Empire—Manchuria and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183~184.

16) 강진아,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전후 만주의 유산」, 한기정·노기식 편, 앞의 책, 157~173쪽.

17)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지음, 임성모 옮김, 2004, 『만철』, 산치림, 135쪽. : 전후 일본의 사회제도·경제제도·기술·생활양식·습관 등이 형성된 기원을 전시체제하의 총력

했다.

만주국에서 구축된 경제적·사회적 토대는 만주 표상을 프로파간다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 체제 하에서 프로파간다가 목표로 하는 지점은 대중들의 신체적인 실천에 까지 다다른 것이었으므로¹⁸⁾, 대중들의 ‘결단’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얼리티’의 확보가 그만큼 시급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논픽션 장르의 ‘리얼리티’는 독자 대중들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을 자극하며 만주 이주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된다.

“부락장의 입을 통해서 들은 말을 그대로 고향에 갖다 전하는 것만으로 내 사명의 일부는 다했다”¹⁹⁾는 정인택의 고백은 논픽션 장르가 독자 대중을 흡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큐멘터리의 이상, 즉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이상²⁰⁾을 표현하고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전제하고 있는 언어의 투명성은 전해지는 사연의 ‘진정성’을 보증함으로써 이민의 연쇄를 추동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작은아들이 3년 전에 들어가 사는 굶주리지는 않으니 돌아가실 때까지 배고픈 것이나 면하시려거든 들어오시라고 해서 큰아들의 자식까지 하나 데리고 평안도 순천(順川)골 어디서 떠나 들어온”²¹⁾ 노파의 사연이나, “소를 일곱 마리로 불러서 그것 팔아 회사 빛 한꺼번에 갚은 애기”²²⁾는 빈한한 삶을 살아가는 조선의 독자로 하여금 만주에서의 새로운

전 체제로 거슬러 올라가서 파악하는 논의는 野口悠紀雄, 1995, 『1940年體制』, 東京: 東洋經題新報社를 참조할 것.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시와 전후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전시체제하의 총력전(總力戰) 체제에서 찾는 논의는 山之内靖·ヴィクター・コシュマン·成田龍一 편, 1995, 『總力戰と現代化』, 柏書房을 참조할 것.

18) 전장에서 ‘동원’이란 의식이나 정체성이 아니라 신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도미야마 이치로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전장의 기억』, 이산, 33쪽).

19) 정인택,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조광』, 1942년 10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 체험』, 역락, 47쪽.

20) 폴 워드 지음, 조혜영 옮김, 2011,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의 가장자리』, 커뮤니케이션북스, 44쪽.

21)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조선일보』, 1938. 4. 8.~4. 21.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122쪽.

22) 정인택,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조광』, 1942년 10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60쪽.

삶을 상상하고 욕망하도록 고무한다.

그러나 당시 만주 표상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생성되고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상황을 추적해 보면, ‘신천지로서의 만주’란 개별적인 경험을 본 대로, 느낀 대로 ‘투명하게’ 재현한 결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국 개척 시찰’을 배경으로 재현되고 있는 만주 이민은 “종래의 단순한 이민이 아니요, 대동아건설의 설계도에서 건축되는 새로운 생활의 방식”²³⁾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주 이민의 풍경과 개척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한다’는 작가의 사명은 애초부터 첩무국의 요청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일과 결합되어 있었다. 작가의 눈앞에 보이는 만주의 현실은 1차적인 재현 대상이지만, 그것이 특정한 미디어의 텍스트로 재현되는 2차적 과정은 당대의 사회적 맥락과 작가의 선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만주 내부를 횡단하는 작가들의 여정과 이동, 만주 풍경을 표상해 내는 방식 역시 ‘당대의 만주 텍스트를 통해 대중들이 만주를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프로파간다 전략과 연동하고 있다. ‘리얼리티’는 프로파간다의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으로 선별된다. 최대한 선명하고 명료하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만주’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 즉 ‘스트레오타입(stereotype)’이다. 근대 미디어에서 ‘스트레오타입’은 대중들의 인식이 어떠한 구조와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리프만(Walter Lippman)은 “대개 먼저 보고 나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의를 내리고 나서 본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대중들의 인식이 스트레오타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²⁴⁾ 함대훈이 “『만주로 간다』 이 말이 만주사변전에는 조선서 쫓겨가는 불쌍한 농민들의 바가지를 꿰차고 보따리를 들던 초라한 모양을 연상했지만 만주 건국 이래 6년의 세월이 흐른 금일에 있어서는 만주로 간다는 말이 「일을 하러 가고

23) 유치진, 「개척지 행(行)」,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76쪽.

24) 요시미 순야 지음, 안미라 옮김, 2006, 『미디어문화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5~27쪽.

희망을 갖고 간다」고 할 수 있게끔 되었다”²⁵⁾라고 밝힌 바와 같이, ‘희망’으로 표상되는 스트레오타입은 만주국 건국 이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독일의 문화비평가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가 지적하듯이, 일상의 역사적 현실은 ‘본질적인 우발’로 가득 차 있고, 그 의미 또한 불확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카우어는 ‘애매성’을 진실의 표식으로 보았다. 여기서 ‘애매성’이란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리얼리즘적 충동’과 그것을 해석하려는 ‘조형 충동’이 평형 상태를 이룬 것으로서, ‘절대적 확신’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크라카우어가 “진실이 교리가 되는 순간,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까닭은 ‘리얼리즘적 충동’이 ‘조형 충동’에 압도된 상태를 문제시하기 때문이다.²⁶⁾ 크라카우어가 경계하고자 했던 사태는, 만주리는 특정 공간을 재현하는 작업이 당대의 권력 관계와 뒤얽혀 있는 상황과 조응된다. 크라카우어의 인식을 빌리자면, 전시체제가 논픽션 장르의 만주 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트레오타입’은 ‘조형 충동’이 과잉되어 ‘리얼리즘적 충동’을 배반한 상태²⁷⁾로 볼 수 있다. 만주 표상에서 ‘스트레오타입’이 발견된다는 것은, 만주의 유동적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리얼리즘적 충동’이 만주 표상을 균질화하려는 ‘조형 충동’에 압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만주 표상에 대한 조형 충동의 기저에 ‘진보란, 공간적으로는 지리적인 팽창과 확대 속에서, 시간적으로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근대성의 신화가 놓여 있음은 물론이다.

25) 함대훈, 『남북만주편담기』, 『조광』, 1939년 7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165쪽.

26) 크라카우어의 논의에 대해서는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지음, 김정아 옮김, 2012, 『역사: 끝에서 두 번째 세계』, 문학동네, 19~32쪽과 61~76쪽을 참조함.

27) 크라카우어에 의하면, 사진과 역사 양쪽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는 리얼리즘 경향과 조형 경향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는 일이다. 크라카우어는 ‘올바른’ 균형을 ‘리얼리즘 경향 ≥ 조형 경향’이라는 수식으로 요약하였다(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지음, 김정아 옮김, 2012, 앞의 책, 71쪽).

3. ‘동원’에서 ‘열정’으로 : 열정의 신화, 갱생의 윤리

만주 기행문은, 만주라는 공간에 대한 조망권을 선취하여 제국이 욕망하는 ‘만주’ 표상을 만들어냄으로써 만주에 관한 대중들의 욕망을 추동하며 관리하는 욕망의 장소지(topography)이다. 어떠한 장소를 재현하고 표상하는 가운데 작동되고 있는 위계질서, 즉 ‘보이는 장소(만주)’와 ‘응시하는 시선(제국)’이라는 권력 구도는 만주에 대한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취향을 형성하는 유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만주의 풍경과 생활상에 대한 서술을 매개로 만주를 표상하고 대변하며 만주에 관한 상상력을 규율한다.

‘욕망의 장소지’라는 관점에서 포착되는 만주 기행문의 특징은, 이상향에 대한 추구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의식을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장소에 투영하여 발현하게 함으로써 지금 여기의 삶을 개조하고 동원하는 프로파간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행문과 시찰기를 통해 전시된 세계는 제국의 총동원 장치 속에서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동원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의식은 만주에 대한 욕망과 이주에 향한 욕망을 교묘하게 중첩시키며,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의 의지가 빛나는지를 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그 의지의 행방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열정 노동’²⁸⁾이다. ‘만주에 대한 유토피아적 욕망’에 중첩되어 있는 ‘자발적 동의’는 또 다른 한편으로 총동원의 현장을 ‘열정’의 언어로 봉합한다.

만주가 표상하고 있는 유토피아성은 국가 통치술의 합리성으로 말미암아

28) 3장에서는 ‘열정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신화화된 과잉 노동과 착취, 동원의 기원을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에서 찾아볼 것이다. 요컨대 ‘열정 노동’은 과잉된 노동 현장에서 착취되는 비정규직의 삶을 ‘욕망’의 이름으로 은폐하고 봉합하는 수단이다. ‘프로게이머’와 ‘연예인’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을 착취하는 현장이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둔갑하는 것은 단적인 예이다. 신자유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열정 노동’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만주국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자유주의에서 착취의 또 다른 이름인 ‘열정 노동’에 대해서는 한운형·최태섭·김정근 지음, 2012,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 지식하우스를 참조함.

본질적인 모순의 해소가 선취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성의 원천은 국가 그 자체이다. 고도로 조직화된 행정 및 관료들이 기획하는 제도들은 그 합리성을 보여주는 세부적인 요소들이다. 가령, 협화회에 구현된 다민족주의²⁹⁾나 값싼 소작료·제방 및 댐 건설·치안 확보 등의 근대적 문명은 그러한 제도들의 예일 것이다. 만주로 들어온 조선 농민은 “흙을 주지 않는 고향을 버린”³⁰⁾ 이들인지라, “만주에나 가서 넓은 땅 맘대로 농사짓고 잘 살아보자”³¹⁾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다. 「남북만주편답기」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주 농토의 높은 생산성은 그 희망의 실현을 보증한다. 함대훈은 “만주이주는 낙토를 찾는 것이나 다름 없나니 그 일례로는 첫째 조선내와 비교해서 토지가가 저렴하고 일정보 생산고가 2석 내지 2석인데 비료는 통 쓰지 않으니 년 3할의 수확이 된다”고 하면서 “자본가나 농민이나 영농에 있어서 만주는 낙토”라고 확신한다. ‘만주낙토’ 담론은 만주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 즉 “농민으로서 유리한 것은 소작료로 지주에게 바치는 것이 3분 1내지 5분 1”³²⁾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논리 구조에 의하면, “노동 계급이 탈인간화의 극단을 경험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보호하려는 정치 제도들을 폭력적으로 파괴하여 세계를 변혁하려는 실천”³³⁾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 의지가 꺾끗하면 꺾끗할수록,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성공되는 도수는 높아가고 곤란은 극복이 되는 것”³⁴⁾이라는 장혁주의 단언처럼, 만주국에서 곤란의 극복은 ‘개인적인 의

29) 협화회는 종족간·민족간 협력과 식민주의적 태도의 포기를 개발함으로써 모든 제국주의를 대신할 새 형태의 반제국주의 국가를 구상하고 있다. 초기 협화회의 이러한 이상은 동아시아의 이상에 배태된 영구평화의 수사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세워졌다(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2008, 앞의 책, 136쪽).

30)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조선일보』, 1938. 4. 8.~4. 21.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121쪽.

31) 정인택,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조광』, 1942년 10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51쪽.

32) 함대훈, 「남북만주편답기」, 『조광』, 1939년 7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앞의 책 176~177쪽.

33) 레셰크 코와코프스키 지음, 변상출 옮김, 2007,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흐름』, 유로서적, 347쪽.

지'의 행방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것, 즉 '자기 연마'의 문제로 귀속된다. 여기서 '자기 연마'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스스로를 교정·정화·구원하려는 활동을 일컫는다. '자기 연마'에는 쾌락에 대한 도덕적 성찰, 즉 절제와 자제의 훈련을 통하여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³⁵⁾ 장혁주가 영홍농촌을 둘러보고, “그 벼 알 하나 자라지 못하는 ‘알칼리성’ 토지를 오늘엔 비전옥토로 만들어”³⁶⁾ 놓았음에 감탄하며 “없는 것은 돈이 아니고 의지였고 연구심이고 부락의 노력”이었음을 부차 강조한 것도, 개척을 둘러싼 문제들을 자기 연마의 열정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이다. “논 한 때기 엷고 산전을 파고 솟을 구어서 근근이 생활해 나가든 빈촌을 부촌을 만든 사람, 1년에 수천 원씩 저축이 있도록 힘쓴 농촌 지도자들도 수두룩하니 보았다”³⁷⁾는 목격담에서, 가난 때문에 고향을 버려야 했던 조선 농민들은 자기연마의 롤모델로 등장한다.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만들어지는 ‘자수성가의 서사’는 누구든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기표를 유포하며 ‘열정’을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중추적인 자리에 위치시킨다.

근대적 통치술의 합리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자기 연마’는 국가 권력이 어떻게 미시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푸코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개인에 관한 정치의 테크놀로지’와 연결시켜, “우리가 자신을 하나의 사회로, 하나의 사회적 실체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국가나 정부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 된 방식”³⁸⁾을 추적하였다. 푸코에 의하면 근대적인 통치

34) 장혁주, 「개척정신」, 『半島の光』, 1942년 8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58쪽.

35) ‘자기 연마’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 지음, 이혜숙·이영목 옮김, 2006, 『성의 역사3 - 자기 배려』, 나남출판, 제2장을 참조함.

36) 장혁주, 「개척정신」, 『半島の光』, 1942년 8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60쪽.

37) 장혁주, 「개척정신」, 『半島の光』, 1942년 8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58쪽.

38) 미셸 푸코 지음, 「개인에 관한 정치의 테크놀로지」, 미셸 푸코 외 지음, 이희원 옮김, 1997, 『자기의 테크놀로지』, 동문선, 246쪽.

술의 목표는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강화에 있으므로, 국가의 관점에서 개개인의 자기연마 메커니즘은 개인이 국가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만 유효하다.³⁹⁾ 이와 관련하여, 장혁주가 노름판에 버글거리는 노름꾼과 강에 배를 띄우고 선유(船遊)하는 화류객들을 보고 비판하는 장면을 보자. 장혁주는 놀이에 탐닉하는 이들에게 “그 의지와 정력과 시간을 건설사업에 쓰도록 힘썼다면 얼마든 좋은 성과가 났을 것”이라며 노동으로 수렴되지 않는 놀이를 타자화하는 한편,⁴⁰⁾ 조선 농민들의 노동을 만주국의 건설 사업의 자장 안으로 재배치한다.

이기영이 비록 “만주의 농촌개발은 장대한 자연과의 투쟁 중에서 위대한 창조성(수전개척)을 띄어 있고, 그만큼 그것은 장래의 농민문학을 개척함에 있어서도 위대한 소재와 정열을 제공할 줄 안다”고 전망하였지만, 소위 말하는 ‘장대한 자연과의 투쟁’을 이끄는 ‘정열’의 행방은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주국 건설의 서사 속에서 “광범한 프롤레타리아문학중의 한 범주로서 농민문학”⁴¹⁾이 지니고 있던 지위는 탈각된다.⁴²⁾ 프로문학론에서 “피×× [압박] 층으로서 전형적인 농민”이었던 농민들은 만주국에서 “낙토를 건설하려는 개척민”⁴³⁾을 대표하며, ‘국방농가(國防農家)의 창설’⁴⁴⁾로 대표되는 내셔널리즘의 회로 속으로 흡수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 농민

39) 미셸 푸코 지음, 이희원 옮김, 1997, 앞의 책, 252~257쪽.

40) 전시체제가 노동과 놀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박은희, 2011. 11, 「전시체제가 놀이의 프로파간다화와 식민지 규율」,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권, 355~388쪽을 참조할 것.

41) 안함광, 「농민문학 문제 제론」, 『조선일보』, 1931. 10. 23. 여기서는 임규찬·한기형 편, 1990, 『볼셰비키화와 조직운동』, 태학사, 337쪽.

42) 와타나베 나오키는 식민지 조선의 농민문학의 주제가 점차 변질해 간 데에는 만주국 건국과 그 이후의 역사가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농민문학으로부터 ‘개척문학’으로의 변질”로 일컫고 있다(와타나베 나오키, 2011,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협화’의 서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314~321쪽).

43) 이기영, 「만주와 농민문학」, 『인문평론』, 1939년 11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95쪽.

44) 我妻東策, 「國防農家の創設」, 『開拓』(日本: 大阪) 제8권, 1944년 10월호, 2~16쪽.

들의 노동이 내셔널리즘의 자장 속으로 재배치될 때 노동과 생산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모순이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총체적인 조망은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다. 생산 과정에 묻어 들어 있던 사회적 관계망이 제거되고 생산 그 자체만이 전면화될 때, ‘열정’은 전체성으로의 개인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국가 통치술의 하나로 작동하게 된다.

국가 통치술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열정’이란 다시 말하면 주체와 세계와의 갈등, 세계 내의 모순들의 충돌로 인한 균열, 주체 내부의 회의와 불안 등 일체의 이질적인 에너지들이 국가 주도의 계획과 통제 하에서 관리된 상태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조건 없는 긍정성’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기개조’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조선에서 만주로 이주해 간 농민들이 ‘개척선농(開拓鮮農)⁴⁵⁾으로 호명되는 현상은 자기개조의 과정이 어떻게 열정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이다. “개척민 제군이 과거의 비애를 그 알칼리 지대를 옥토화(沃土化)하는 의기로 저버리듯이 더한층 나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민족적 흠함(欠陷)을 극복하고 십 년 동안 쌓여 나온 그 개척정신을 더 한층 발휘해서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⁴⁶⁾는 장혁주의 당부에서 은유적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알칼리 지대에서 옥토로 변환되는 ‘개척 과정’은 조선 농민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해소하고 ‘불온사상자’에서 ‘온건순량한 청년’으로 전이되는 ‘자기개조의 과정’과 중첩되어 있다. 장혁주는 자신이 방문한 회덕 개척촌⁴⁷⁾에 대해, 원래 “안동 근처의 소위 밀수업자들”과 “지난날 불온사상자의 종졸(從卒)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 개척한 곳인 까닭에 “특이한 구성분자”를 이루고 있었지만, 알칼리 토지를 비옥한 땅으로 가꾸어 나가는 동안 사상이 건전하고 온건순량한 청년들로 구성된 마을로 변화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장혁

45) 함대훈, 「남북만주편답기」, 『조광』, 1939. 7.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77쪽.

46) 장혁주, 「개찰지 시찰 보고」, 『매일신보』, 1942. 6. 15.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50쪽.

47) 회덕 개척촌에 대해서는 장혁주, 「개찰지 시찰 보고」, 『매일신보』, 1942. 6. 15.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46~148쪽을 참조함.

주가 “개척민 자체의 심리투쟁과 의지연마가 외부에서 엿보지 못하리만치 심도했으리라” 추측하는 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개척촌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은 ‘존재의 갱생’에 이르는 신성하고 윤리적인 의식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회덕 개척촌에 대한 묘사가 개척의 풍경 자체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정신적인 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수련이나 개조의 과정에 동반되는 ‘자발적인’ 동의와 결단을 강조함으로써 권력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이를 ‘자유’의 형식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더 많은 노동, 더 높은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참된 마음”과 “불굴의 정신”과 같은 강도 높은 긍정적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 ‘강도 높은 긍정적 에너지’란, ‘자유’의 형식을 띤 폭력의 또 다른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자기착취 시스템’으로 귀결된다. 총동원 체제에 내재된 강제와 억압이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을 통과하면서 자유 의지의 발현으로 융합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발적인 자기착취 시스템’이 구축되면서부터이다. 프로파간다 메커니즘 속에서 동원의 순간은 열정의 파토스로, 폭력의 순간은 자유 의지의 발현으로 융합된다.

4. 유토피아 표상의 간극과 균열

유토피아 표상이 만들어내는 판타지가 과잉될수록 프로파간다 내부에는 그 판타지로 미쳐 융합하지 못하는 잉여 지점이 발생한다. 아울러 프로파간다의 내부에는 판타지의 과잉 속에서 스스로를 소진하게 되는 국면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열정적인 노동의 광경이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풍경이라면, 긍정의 연쇄를 통해 소진되고 고갈된 광경은 ‘열정’의 프로파간다 속에서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잉여의 풍경이다. 각기 다른 두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파간다가 애초부터 지니고 있었던 양날의

칼을 접하게 된다. 그것은 프로파간다의 표면에서 강화된 지점과 휘발된 지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도록 해 준다. 후자의 존재는 비록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에서 주변화되어 있지만, 관리된 공간 속에 공존하고 있는 ‘간극’과 ‘균열’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의 본질을 사유하도록 일깨워 준다.

다음에 인용하는 글은 『제일선(第一線)』 1932년 9월호에 실린 「현대조선의 사대광(四大狂) : 만주광(滿洲狂) · 금광광(金鑛狂) · 미두광(米豆狂) · 잡지광(雜誌狂)」의 일부이다. 이 글은 비록 본격적인 전시체제기에 돌입하기 이전에 발표된 글이지만, 전시체제가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을 둘러싼 현실적 정황의 핵심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주대전이 지나고 한참 세계경기가 조흔때에는 살수업은 조선사람들이 현해탄을건너서 동경으로 대판으로하고밀려갔었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시장에서는 갑작품삭을주고 만흔노동력을 사기에는 조선사람이조흔지라 가는대로 그들을 수용하여 마다고아니하였지만 그또한편으로는 일즉이 만주의들 판이 넓고걸어서 농사지어먹기에조타는소리를듯고 남부여대로 박아지를차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남북만주로 호터진무리도 적지는아니하였었다. 그러나 그곳이라고 그들을 환영하여줄리는 만무한일이라二三년래 중궁⁴⁸⁾사람의 압박과구박이 자심하여 근거를잡고살수가업시된지라 여기서 건너가기는고사하고 거기서살든사람까지 쫓겨나온수효가 만했으며 방금도 쫓겨나오는피난민이 몹시도부렀다.

그런데 어째서 만주광이 새로생겼는가 그것은 조금피이한일갓지만 생각해보면 그럴듯도한일이다. 작년九月에 이러난 만주사변을 기회삼어 아직확실성은업다하더래도 소위신정권이생기고 신국가가성립되야 문호를개방하고 덕정을 베풀고 민족공영을 부르짖고하는바람에 무슨수나생길드시 조선에서는 단체나개인을물론하고 어중이떠중이모다튀어나서서 만주만주하고 뒤써드렸다. 그중에도정말살수업은궁민층보다는 소위지식층, 부호층들이 상당히 열을내여가지고 무엇이 금방에될드시 야단을쳤다. 그리하여 만주에대한 아모지식도 정세도모르고막연이 건너간사람도잇으며 무엇해보겟다고 써드는

48) ‘중궁’의 오기(원문 오기).

사람도 약간잇는모양이나 **아짓껏무엇하나 실현된것이잇다는말을듣지못하였**
다.⁴⁹⁾(강조 및 방점은 필자)

이 글은 만주를 향해 떠나는 사람들과 만주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동과 횡단을 모두 담고 있다. 동아시아를 횡단하는 조선인들의 움직임은 좀더 정확히 말해, 전통적인 토지로부터 분리된 이후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들이 생존을 위해 내셔널리티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동과 횡단의 부단한 움직임이 보여주듯이, 삶의 안정성은 글로벌한 경제 체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경기”의 등락에 따라 휘청거린다. 그것은 자기 건설의 의무를 수행하는 근대인의 행로에 각인되어 있기 마련인 유토피아적 표상과는 거리가 멀다.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의 귀환은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에서 보이던 낭만이나 개척의 이상이 ‘만들어진’ 이미지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한다. 이 글에서 ‘만주’는 부러움의 시선을 낳는 풍경이 아니라, 만주에서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본질을 깨닫게 하는 생의 현장이다. 본질의 각성을 통해 욕망의 시선은 비로소 거두어진다. “중국 사람들의 압박과구박이 자심하야 근거를잡고살수가업시되리라” “쫓겨나오는피난민”이 불어나고 있는 현실은 광활한 대륙에 대한 감탄과 처너지 표상과 묘하게 대비되며 프로파간다의 실체에 직면하게 만든다. “무슨수나생길드시” “어중이썩중이모다튀어나서서 만주만주하고 뒤썩드럿”던 조선의 현실이 “만주광(滿洲狂)”으로 불리며 조소의 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만주행 엑소더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만주에 대한 유토피아적 욕망은 ‘이주 → 개척 → 정착’과 같은 단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봉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주는 “개인으로 낙(樂)은 채표(彩票)의 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거나 빠지면 우리도 다시 한번 고향 산천에 가 살아볼까”⁵⁰⁾ 기대하며, 소위 ‘한 탕의 꿈’을 좇는 공간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

49) 우석(愚石), 1932. 9. 앞의 글, 82~83쪽.

나 열과 성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프로파간다는 “밤낮 이꼴이다가 호인들 받머리에 묻히고 말”⁵¹⁾ 것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을 대면할 때, 서서히 균열된다. “소를 일곱 마리로 불러서 그것 팔아 회사 빛 한꺼번에 갚은 애기”⁵²⁾는 어느새 휘발되고, “신경서 기름 장사하던 노파와 어떤 회사 급사로 있었던 소년이 타먹었다는”⁵³⁾ 채표의 소문이 일상을 잠식한다. 힘들여 노동해도 즐거움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등 상금의 행운은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⁵⁴⁾인 셈이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채표에 기대하고 의지할수록 노동과 개척의 신화는 그것이 애초에 차지하고 있었던 신성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노동을 통한 정착의 꿈’이 만주 유토피아를 구성하던 중요한 축이었다면, ‘놀이(채표)를 통한 귀향의 꿈’은 만주 유토피아에 균열을 가하는 또 다른 축이다. 이 두 축 간의 긴장은, 유토피아적 기획이 가지는 호소력과 그것의 실재성 사이의 간극에서부터 발생한다. 이 두 축 간의 간극은 이기영의 「만주견문-‘대지의 아들’을 찾아」에서 포착할 수 있다. 물론 이기영이 이 두 축 간의 간극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주견문」을 집필한 것은 아니다. 「만주견문」에서 이기영은, “만주의 이주농민 대다수가 오히려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사처에 방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병폐인 부동산과 일확천금의 몽상을 깨우쳐 보려 한다”고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드러난 조형 충동을 ‘후경(後景)’으로 배치한 후, 이 글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충동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프로파간다의 결을 역행하여 드러나고 있는 유토피아 표상의 간극과 균열을 발견할 수

50)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조선일보』, 1938. 4. 8.~4. 21.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37쪽.

51)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조선일보』, 1938. 4. 8.~4. 21.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같은 쪽.

52) 정인택,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조광』, 1942. 10.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60쪽.

53) 이태준, 「이민부락견문기」, 『조선일보』, 1938. 4. 8.~4. 21.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같은 쪽.

54) 로제 카이와 지음, 이상률 옮김, 1994, 『놀이와 인간-가면과 현기증』, 문예출판사, 211쪽.

있다. 그 간극의 핵심은 만주의 땅, 즉 토지 문제이다. 여행자의 시선 너머로 포착되는 광활한 대륙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결핍을 상기시키고, 그 결핍이 강할수록 만주에 대한 욕망도 강렬해진다.⁵⁵⁾ 그렇기 때문에 “만주는 왕도낙토(王道樂土)고 가면 땅은 얼마든지 있다”⁵⁶⁾는 것은 만주 유토피아를 추동하는 프로파간다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생존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주자-내부의 시선’⁵⁷⁾으로 바라보면, 만주의 농토가 대부분 ‘만인(滿人)’ 소유임이 한 눈에 들어온다. 「만주견문」 서두 부분에서 이기영은 비록 “그들의 병폐인 부동성과 일확천금의 몽상을 깨우쳐 보려 한다”는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지만, 프로파간다의 결을 역행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조선 농민들의 ‘부동성’이다. 농사일이란 본질적으로 토지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영역에 놓여 있는 일, 즉 농사꾼이 땅에 공을 들일수록 노동의 보람 역시 커지는 일이다. 그러나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노동’에만 모든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이들에게 농사일이란, 정성과 보람이 분리된 채 존재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으리라 싶었고 그럴 바에는 힘들어서 피를 뽑아가며 농사를 지을 것이 무엇이냐”⁵⁸⁾는 자조 섞인 항변처럼, 이들에게 노동은 정성을 들일수록 허망해지는, 그리하여 소진의 연쇄 속으로 함몰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프로파간다 메커니즘 속에서 노동은, 만주 유토피아를 향한 유일한 통로로 신화화되어 있는 동시에 개인의 삶과 사회질서, 그리고 체제 재생산의 축⁵⁹⁾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만주에서 이러한 노동의 위상은

55) 결핍과 욕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자크 라캉 지음, 권택영 옮김, 1995,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1~36쪽을 참조함.

56) 정인택,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조광』, 1942년 10월호,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앞의 책, 55쪽.

57) 한수영, 2005, 「만주, 혹은 체험과 기억의 균열」, 『친일문학의 재인식 : 1937-1945년 간의 한국소설과 식민주의』, 소명출판, 183쪽.

58) 이기영, 「만주견문」, 『조선일보』, 1939. 9.~1939. 10. 3.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앞의 책, 108쪽.

59)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 2010, 『새로운 빈곤-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천지인, 35쪽.

점점 몰락해간다. 전시체제가 만주 기행문을 하나의 전체로 바라볼 때, 한편에서는 ‘열정 노동’을 창출하며 자유와 강제가 뒤엎힌 자기착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의 위상이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현상이 만주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두 현상은 하나의 동인(動因)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열정 노동이 강요될수록 유토피아의 실현은 요원해지며, 노동에 대한 기대도 점점 사라진다.

‘만인 지주-중간인-조선인 소작농’으로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조선 농민들은 “마치 금점꾼처럼 오늘 충청도 명일 함경도식으로 일확천금을 몽상하면서” “농사도 투기적으로 금점하듯”⁶⁰⁾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기영은 ‘부황한 나농(懶農)’과 ‘실농’의 차이로 기술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놓여 있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토지란 원래 인간의 여러 체도와 떼어낼 수 없도록 얽여 있는 자연의 한 요소로서, 인간의 삶에 안정성을 가져다준다.⁶¹⁾ 소작의 방식으로 토지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인 요소만 떼어 낸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삶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조선 농민의 부동성은 만주의 소진된 토지 이미지와 짝을 이루어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을 프로파간다 내부에서 균열시킨다. 유토피아적 기획이 연출하는 시나리오에 의하면, 만주의 토지는 개척 가능한 땅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다.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이미지 속에서 만주의 토지는 오직 노동의 유연한 투입을 통하여 잉여 생산물을 최대한 산출해 내는 장소로 사물화된다. 그런데 생산의 연쇄 과정 속에서 만주의 토지는 ‘비옥한’ 땅에서 “지력이 체감하여 차차 수확이 줄어”⁶²⁾드는 땅으로 변해간다. 만주의 토지는 개척민들의 열정 노동을 끌어내는 프로파간다의 장이지만, 바로 그 이유로 인

60) 이기영, 『만주견문』, 『조선일보』, 1939. 9. 26.~1939. 10. 3.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07쪽.

61)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464~465쪽.

62) 이기영, 『만주견문』, 『조선일보』, 1939. 9. 26.~1939. 10. 3.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107쪽.

해 소진되며 고갈되는 곳이기도 하다. 만주의 토지가 소진되는 과정은 삶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마치 화전민처럼 오지로 오지로 옮겨”⁶³⁾가다 살림은 늘지 않고, 결국 술과 아편, 그리고 도박으로 자신의 생을 탕진하는 이들의 모습과 거울처럼 닮아있다.

5. 나가며 : 긍정의 폭력, ‘자발적 동의’에 대한 사유

프로파간다의 핵심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자발적 동의에 이르도록 하는 긍정의 메커니즘은 대중들이 지니고 있는 욕망에 호소하고, 욕망을 자양분으로 삼아 작동된다. 그러나 표면적인 레토릭과는 달리, 긍정의 메커니즘이 작동된다고 해서 파시즘 체제의 폭력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긍정화는 곧 ‘긍정성의 폭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낳는다. 여기서 긍정성의 폭력이란, 부정이 없는 동질적인 것의 공간, 적과 동지,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 공간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같은 것이 지배하는 시스템 자체에 폭력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다.⁶⁴⁾ 긍정성의 폭력은 동원과 착취를 열정의 이름으로, 강제와 억압을 자유 의지의 발현으로 봉합하는 프로파간다의 본질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선농민의 만주국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까닭이 세계 공황 이후 조선 반도 내의 경제 불황과 농촌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⁶⁵⁾는 것을 기억한다면, ‘만주’ 하면 떠오르는 노동 영웅들은 만주국 이민을 둘러싼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소거하고 문제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자

63) 이기영, 「만주견문」, 『조선일보』, 1939. 9. 26.~1939. 10. 3. 여기서는 민족문학연구소, 2007, 앞의 책, 같은 쪽.

64) 긍정성의 폭력성에 관해서는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 201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12~22쪽을 참조함.

65) 田中隆一, 2007, 앞의 책, 180~181쪽.

기 연마의 문제로 환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다. 자기 연마로 대표되는 자기 지배의 테크놀로지는 ‘이상 자아’의 모습을 끊임없이 욕망하고 원하는 긍정의 연쇄를 기반으로 작동되지만, 주체는 바로 그 긍정의 연쇄 때문에 서서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충족되지 않는 욕망은 항상 똑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주체를 유혹하게 되고, 주체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게 된다. 욕망이 결핍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한, 자기단련과 자기착취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진다. 지력이 체감하여 수확이 줄어들드는 만주 토지의 고갈은 주체의 소진과 묘하게 짝을 이루어 프로파간다화 메커니즘을 내부에서 균열시킨다.

만주 개척의 풍경에서 레토릭의 표면에 남은 ‘자발적 동의’가 실상은 겹겹의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을 거쳐 도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자발적 동의’란 내밀하고 정교한 ‘포섭’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발적 동의’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성립된, 즉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프로파간다화된 만주 표상 역시 욕망의 정치학과 함께 분석해보면, ‘자발적 동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처럼 느껴진 것이 실제로는 전혀 자유가 아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의 지평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예컨대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에서 어디까지가 파시즘에 의한 동원이고, 어디부터가 파시즘을 향한 욕망인지 매끈하게 잘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프로파간다를 공고하게 만드는 축과 그것을 균열시키는 또 다른 축이 프로파간다의 내부에 공존하고 있는 형상과 동일하다. 만주가 비록 제국의 표상 체계 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만주’를 매개로 식민지 조선이 확보하고자 했던 지평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만주국이 내세우고 있었던 ‘왕도낙토(王道樂土)’나 ‘민족협화(民族協和)’ 이념은, 민족과 제국의 경계를 넘어 ‘제국’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식민지의 발화지점이기도 했다. 만주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적 시야’를 통해 식민지가 꿈꾸고 있었던 새로운 지점은, 제국의

인정과 승인에 감격하던 의존적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국의 질서를 재조정하고 세계와의 대면을 피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했다.⁶⁶⁾ 그렇기 때문에 제국과 자본의 확장에 주체의 욕망을 투사하는 순간에도 탈중심화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자유의 지평을 확보하는 데 관건이 된다. “자유란 현상에 대한 부정적 사유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신의 내적 차원”⁶⁷⁾이라는 마르쿠제의 명제를 상기해 보면, ‘탈중심화된 태도’는 ‘긍정성의 폭력’을 저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일 것이다. “좀더 획득해야 할 어떤 것을 이미 더 이상 추구하지도 않고 더 이상 욕망하지도 않으면서”⁶⁸⁾ 열정을 품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열정의 파토스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되는 무자비한 노력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회되어야 할 태도이다.

투고일 : 2013년 11월 28일, 심사개시일 : 2013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5일

66) 민족협화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식민지와 제국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다른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67) H. 마르쿠제 지음, 박병진 옮김, 2002, 『일차원적 인간 : 선진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마음사, 281쪽.

68) H. 마르쿠제 지음, 김인환 역, 2009, 『에로스 and 문명』, 나남, 230쪽.

참고문헌

1. 자료

- 『第一線』, 『동아일보』, 『東洋之光』, 『삼천리』, 『開拓』.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新京: 滿鮮學海社, 1942.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 체험』, 역락.

2. 논문 및 단행본

- 강진아, 2008,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전후 만주의 유산」, 한기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157~173쪽.
곽은희, 2011. 11, 「전시체제기 놀이의 프로파간다화와 식민지 규율」,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권, 355~388쪽.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제국내 이민 정책의 유산」, 한기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197~214쪽.
김 철, 2002. 8, 「몰락하는 신생(新生)-‘만주’의 꿈과 「농군」의 오독(誤讀)」 『상허학보』 9집, 123~159쪽.
와타나베 나오키, 2011,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협화’의 서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 311~346쪽.
이경훈, 2003. 4,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92~119쪽.
임규찬·한기형 편, 1990, 『불세비키화와 조직운동』, 태학사.
임성모, 2008, 「만주국과 오키나와의 비교사적 고찰」, 한기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336~355쪽.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 201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한수영, 2005, 「만주, 혹은 체험과 기억의 균열」, 『친일문학의 재인식: 1937-1945년 간의 한국소설과 식민주의』, 소명출판, 163~190쪽.
한운형·최태섭·김정근 지음, 2012,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웅진 지식하우스.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지음, 임성모 옮김, 2004, 『만철』, 산치림.
도미야마 이치로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전장의 기억』, 이산.
아마무로 신이치 지음, 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 만주국의 표상』, 소명출판.
요시미 슌야 지음, 안미라 옮김, 2006, 『미디어문화론』, 커뮤니케이션북스.
H. 마르쿠제 지음, 김인환 역, 2009, 『에로스 and 문명』, 나남.
H. 마르쿠제 지음, 박병진 옮김, 2002, 『일차원적 인간: 선진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 연구』, 한마음사.

-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2009, 『대중을 유혹하는 무기- 정치와 프로파간다』, 한울 아카데미.
- 레세크 코와코프스키 지음, 2007,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흐름』, 유로서적.
- 로제 카이와 지음, 이상률 옮김, 1994,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 미셸 푸코 지음, 1997, 「개인에 관한 정치의 테크놀로지」, 미셸 푸코 외 지음, 이희원 옮김, 『자기의 테크놀로지』, 동문선.
- 미셸 푸코 지음, 이혜숙·이영목 옮김, 2006, 『성의 역사3-자기 배려』, 나남출판.
- 자크 라캉 지음, 권택영 옮김, 1995,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 2010, 『새로운 빈곤-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 푸어』, 천지인.
-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지음, 김정아 옮김, 2012, 『역사: 끝에서 두 번째 세계』, 문학동네.
-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 플 워드 지음, 조혜영 옮김, 2011, 『다큐멘터리: 리얼리티의 가장자리』, 커뮤니케이션선북스.
- 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 Louise Young, *Japan's Total Empire-Manchuria and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山之内靖・ヴィクター・コシユマン・成田龍一 編, 『總力戦と現代化』, 柏書房, 1995.
- 野口悠紀雄, 『1940年體制』, 東京: 東洋經題新報社, 1995.
- 田中隆一, 『滿州國と日本の帝國支配』, 東京: 有志舎, 2007.

■ Abstract ■

A Representation for Manchuria as a Propagandization and The Politics of Desire

Kwak, Eun-Hee

In this article, I tried to analyze such materials as travel essay, field tour report and symposium materials on Manchuria, based on the idea that an ‘utopian desire’ towards a better life is presented through Manchuria which was a testing ground of modern society and the way out of colonial Korea. The travel essay of Manchuria is a ‘topography of desire’ to encourage and manage a public desire of Manchuria, by creating a representation of Manchuria which the Japanese Empire want to create.

On the other hand, the more fantasy which an utopian presentation created is overflowed, the more a point of surplus to not be suture come to uprise in the inside of propaganda. Also, the utopian desire of Manchuria may not be suture with an unilinear and uniform approach such as ‘migration → pioneer → settlement’. While ‘the dream of settlement through labor’ was a central axis to made Manchuria utopia, ‘the dream for homecoming through a play’ was another central axis to crack that utopia.

The mechanism of the positive to reach a voluntary agreement may appeal to the public’s desire, and may be operated by nourishing the desire, however, at the same time, it brings a new form of violence called to ‘a violence of positivity’. The ‘violence of positivity’ is the nature of propaganda to disguise mobilization as the name of passion, and to suture a compulsion with a revelation of the free will.

Key words : wartime system period, propaganda, Manchuria, the state of Manju, travel essay, utopia, desire, passion, mobilization, self exploitation, crack, gap, migration, return, exhaustion, freedom, violence of positivity.